



2020년 10월 26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26.(월) 오전 9시 20분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0. 26.(월)	담당부서	구주통상과
담당과장	송주호 과장(044-203-5660)	담당자	이기현 사무관(044-203-5666)

성윤모 장관, 영국과 그린·디지털 뉴딜 협력에 머리 맞대

- 기후변화 대응 공조 강화하고 그린 뉴딜 협력 활성화 -
- 그린·디지털 분야,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및 고위급 대화 통로 신설 -
-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, 유명희 후보 적극 지지 요청 -

-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.26(월) 영국의 알록 샤마(Alok Sharma) 기업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개최(장소: 롯데호텔 서울)하고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.
 - 영국은 유럽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('19년, 유럽내 독일에 이어 2위 수출국)이자 제1위 투자대상국이며, 지난해 한-영 자유무역협정(FTA)를 선제적으로 체결(서명 '19.8월, 비준 10월)하여 영국의 유럽연합(EU) 탈퇴, 즉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을 제거함과 동시에 한·영 통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 바 있다.
 - * '19년 교역액 97억 달러(수출 55, 수입 42), 누적투자액(영국→한국 188억 달러, 한국→영국 214억 달러)
- 성 장관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으로 양국 모두 그린 및 디지털 전환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, 향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.
 - 특히, 지난해 국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한-영 자유무역협정을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등 두터운 신뢰 관계를 보여준 바,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산업·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.

□ (에너지 협력) 먼저, 성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내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력 당사국총회*(COP26)가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한국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,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'녹색성장 및 세계적 목표 2030을 위한 연대'(P4G 정상회의**)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력 당사국총회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
* COP26(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: '21.11.1-12일 영국 글래스고 개최

** P4G(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): 민·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, 지속가능발전, 파리협정과 같은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

○ 또한, 해상풍력의 경우, 올해 8월 세아제강지주와 영국 정부간 해상 풍력 구조물 생산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(MOU)가 체결되는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, 향후 정부차원에서도 공동 연구개발(R&D)이나 정책교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.

* 영국 현지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(모노파일) 생산설비(연산 16만톤 규모) 건립

○ 아울러, 원전사업과 관련된 그간의 협력을 평가하면서, 양국간 원전 협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, 영국 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전달하고, 영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□ (산업 협력)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기준에 공동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양국이 산업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, 인공지능 등 3대 첨단산업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.

○ 먼저, 한국이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의약품 생산기지로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약 6.3억 달러 투자 계획이 의약품 위탁생산계약*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음을 평가하며, 양국 바이오 산업의 향후 협력 모델로 제시했다.

* (아스트라제네카) '19.6월 5년간('20~'24) 약 6.3억불 투자계획 발표 후, SK바이오사이언스('20.7월, 코로나19 백신), 삼성바이오로직스('20.9월, 바이오의약품)와 위탁생산 계약 체결

- 시스템반도체의 경우, 영국이 시스템반도체 설계자산(IP)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은 미래차, 5세대 이동통신(5G) 등 수요 기반이 탄탄한데다 최근 대규모 투자*가 단행되고 있으므로 양국간 사업 및 기술협력** 추진에 상호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.

* '19.4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투자 발표(연구개발 73조원, 생산시설 60조원)

** 한전과 ARM사는 원격 검침용 시스템반도체 개발중('18~'21, 152억원)

- 아울러,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양국의 높은 관심*을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 분야 공동기술개발, 빅데이터 분석 및 표준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제안했다.

* 영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2025년까지 약 10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(AI 섹터딜, '17년)

- (기술협력) 양측은 코로나19 이후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린 및 디지털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, 지난주 개최된 제6차 과학기술혁신협력관계(STIP) 위원회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.

- 이번 서명을 계기로 양국은 친환경차, 에너지효율 등 친환경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에너지기술 작업반(WG)을 운영하고,

* STIP(과학기술혁신파트너십): 한국 산업부 영국 기업에너지부 국장급 위원회로 격년 교차 개최

- 별도 재원을 통해 '한-영 공동기금형 연구개발 프로그램'을 개설하여, 인공지능(AI), 바이오 등 양국 간 전략 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- (고위급 협력통로 신설) 양측은 브렉시트 후, 통상뿐 아니라 산업·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 증가에 공감하고 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양부처간 고위급 대화 통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.

- 해당 고위급 대화 통로는 기존의 원전 및 과학기술 국장급 협의체와 연계해 산업·에너지 현안을 다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다.

- (세계무역기구 선거 지지요청) 성 장관은 이번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으며, 유 본부장이 통상전문성과 정치적 지도력을 모두 겸비한 인물로 세계무역기구 개혁과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책임자임을 강조하며, 영국 측이 유 본부장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.

※ 관련 사진 행사 후 배포 예정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
주통상과 이기현 사무관(044-203-56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